

# 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7월 4주~7월 5주)

## 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### ① 폴란드 경제 동향

#### ○ 폴란드, 2025년 상반기 하루 평균 10개 매장 폐점(7.8)

- Dun & Bradstreet Poland 보고서에 따르면, 2025년 상반기 폴란드에서 하루 평균 10개 매장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남
- 폐점은 주로 식료품, 의류, 가구 등 소비재 중심 소매업에 집중, 전국 소매점 수는 36만 5,200개로 전년 말 대비 0.5% 이상 감소
- 의류·신발, 약국, 자동차 부품, 중고품, 컴퓨터 및 장난감 매장의 폐점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채소가게·빵집·주류 판매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은 소폭 증가세
- 소매업 부분 총부채 24억 즈워티(약 9,140억) 중 절반 이상을 소규모 도매업체 및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며 재정 압박 가중

#### ○ 폴란드 중앙은행, GDP 성장률 하향 조정 및 물가 안정 전망(7.15)

- 중앙은행은 GDP 성장률을 '25년 3.6%, '26년 3.1%, '27년 2.5%로 전망하였으며, 이전 전망치(3.7%) 대비 소폭 하향 조정
-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유로존 1.5% 반등, 미국은 2.1%로 성장세 둔화
- 2025년 물가상승률은 3.9%로 예상되며, 식료품과 연료 가격 상승률 하락으로 전반적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
-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도 서비스·비식품 가격 안정 영향으로 둔화
- \*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 : 소비자물가지수(CPI)에서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 상승률, 일시적인 요인보다 중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,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판단에 활용됨
- 글라핀스키 중앙은행 총재는 “물가가 분기별로 하락 중, 중기적으로는 2.5%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” 이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 표명

- 중앙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이 안정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, 경기 부양 여력 확보를 위한 점진적 통화완화 기조 유지

#### ○ 폴 경제 회복에 따른 독일 내 동유럽 출신 노동자 유입 감소(7.8)

- FAZ(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)\*는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, 최근 중동부 유럽 출신의 이주가 감소했으며, 이는 폴란드 등 출신국의 경제 성장과 인구 감소 영향이라고 보도

\* FAZ(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) :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종합 일간지로, 1949년 창간, 정치, 경제, 국제,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, 독일 내외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중 하나로 평가

-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EU 내 타국으로 이주한 인원이 유입 인원을 초과, 폴란드·루마니아·불가리아 출신 유입은 연 2만 명 수준에서 급감
- 폴란드는 빠른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로 이주 수요가 축소되는 추세, 동서 유럽 간 경제 격차 완화 및 출신국 내 고용 개선도 독일 노동시장 매력 저하 요인
-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은 복지 지원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인을 적극 수용, 이는 폴란드 노동시장에 인력 부담으로 작용
- 인력중개업체 EWL 그룹의 알렉스 카르첼은 외국인 노동자에 안정적인 체류·취업 여건을 제공할 경우 폴란드가 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

#### ○ 폴란드, 고용 감소 및 임금 상승 동시 발생(GUS, 7.21)

- 2025년 6월 기준, 종업원 10인 이상 폴란드 기업의 고용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0.8% 감소
- 폴란드 통계청(GUS)는 같은 기간 기업 부문 평균 임금은 9% 상승, 월 평균 임금은 8,882즈워티(약 340만원)로 집계
- 가족·노동·사회정책부(MRiPS)는 6월 실업률을 5.1%로, 5월(5.0%)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
- 2025년 1월 최저임금은 4,666즈워티(약 178만원)로, 2024년 하반기

4,300즈워티(약 164만원) 대비 8.5% 인상됨

##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EBRD, 우크라이나 중견기업 투자 펀드에 2,500만 달러 출자(7.15)
  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은 드래곤 캐피탈(Dragon Capital)이 조성한 'Rebuild Ukraine Fund(REBUF)'에 25백만 달러 투자 승인
  - REBUF는 우크라이나 내 중소·중견기업의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모투자펀드로, 총 200백만~250백만 달러 규모를 목표로 함
  - 드래곤 캐피탈은 지난해 펀드를 출범, 자체 자금 20백만 달러를 이미 투자 완료
  - 기업당 투자금액은 7백만~30백만 달러 범위이며, 1차 투자자 모집 마감은 2025년 9월 예정
  - 한편, 호라이즌 캐피탈(Horizon Capital)은 'Catalyst Fund SCSP' 조성을 위해 3억 유로 규모의 자금 모집에 착수했다고 발표
  - 해당 펀드는 전쟁 종식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투자 의사가 있는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, 최소 3억 유로를 모아 총 35억 유로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
  - 투자 대상은 중견기업이며, 개별 프로젝트당 투자액은 20백만~50백만 유로 수준
  - 현재 30개 잠재 투자 프로젝트(필요자금 총 20억 유로 이상)가 검토 중이며, 1차 투자자 모집 마감은 2025년 4분기 예정
- 우 서부지역에 연간 30만 톤 규모 복합 벌크터미널 건설 예정(7.18)
  - 우크라이나 서부 무카체보 인근 고론다(Goronda) 지역에 복합 벌크 화물 터미널 및 바이오에탄올 혼합시설을 포함한 석유제품 저장·환적 기지 건설 계획
  - 예정 부지는 약 19헥타르 규모로, 연간 환적능력은 30만 톤이며, 이 중 20만 톤은 바이오에탄올, 비식용 식물성유, 디젤, 휘발유로 구성되며, 잔여 물량은 액화가스로 구성됨

- 구소련(1,520mm) 및 유럽(1,435mm) 표준궤 양측 열차가 모두 진입 가능한 철도 체계와 도로망을 활용해 액화가스, 식물성유, 디젤, 휘발유, 바이오에탄올 등의 수출입을 처리할 계획
- 본 프로젝트는 우크라 전역에 주유소 및 석유 저장시설을 운영 중인 폴타바 소재 에너지 기업 ‘나데즈다(Nadezhda)’가 추진

○ **우크라 주택 건설비 10~30% 상승, 분양시장 투자 위축 및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(7.10)**

-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신규 주택 건설비가 10~30% 증가, 이에 따라 분양가도 상승 압력 지속
- DIM 그룹\* 대표 나시콥스키에 따르면, 키이우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 투자자 비중은 전쟁 이전 60%에서 급감, 현재는 실거주 목적의 개인 수요자가 대부분 차지

\* DIM Group : 2014년에 설립된 우크라이나의 종합 부동산 개발사로, 설계부터 시공, 분양, 자산 관리까지 자체적으로 수행. 키이우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주거·상업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며, '25년 기준 약 90만m<sup>2</sup> 규모의 개발 포트폴리오 보유

- 이는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니라, 1차 시장(신축 분양) 가격이 2차 시장(기존 주택)보다 높은 사례가 많아 투자 수익성 저하로 인한 현상
- 건설사들은 상승한 원가 이하로 분양이 불가능해, 수요자의 기대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
- 다만, 전후 재건기에 도심 내 프리미엄 및 비즈니스 주거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
- 토지 공급 제한에 따라 고급 주택 가격은 m<sup>2</sup>당 7,000~10,000달러 수준까지 상승 가능성 전망

○ **UZ, 적자 지속 속 승객 수 회복세, 유로본드 이자 지급 계획 발표(7.10)**

- 우크라이나 철도공사(UZ, Ukrzaliznytsia)는 2024년 승객 수가 6,57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
- 이는 전년 대비 1백만 명 증가한 수치로, 2년 연속 회복세 유지
- 승객 수는 팬데믹 및 전쟁 이전(2016~2019년) 연평균 1억 6,100만

명 수준에서 2020년 6,830만 명, 2022년 5,740만 명까지 급감

- 2023년 순이익 250억(약 1,670억)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으나, 2024년에는 27.1억 순손실 발생. 전쟁 초기 및 팬데믹 시기에는 각각 96억, 120억 규모 손실 기록
- 구조적 적자는 저운임 구조에 기인, 여객 운송은 운임 수입만으로 비용 충당이 불가하여 화물 운송 수익을 통한 보조에 의존
- UZ는 2026년과 2028년 만기예정인 총 9억 달러 규모 유로본드에 대해, 7월 9일과 15일 이자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, 채무 이행 의지 재확인

#### ○ EBRD, 우크라 분산형 발전 프로젝트에 21.1백만 유로 대출 및 풍력 발전소 투자 검토(7.16)
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은 드래곤 캐피탈 및 에너지 기업 Negen과 협력해 'Power One' 프로젝트에 2,110만 유로 대출 제공 예정
- 프로젝트는 가스 발전, 에너지 저장장치(ESS),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분산형 전력 생산시설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함
- 우크라이나 OKKO 그룹은 2026년 총사업비 약 3억 유로 규모의 192MW 풍력발전소 건설 착수 예정, 2028년까지 전면 가동 목표
- 풍력발전소 자금은 차입 및 자체 자본으로 조달되며, EBRD와 IFC(국제금융공사)가 공동 금융 참여 방안을 검토 중
- 본 사업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추진에 전략적 의미를 지님

#### ○ 우크라 은행, 유럽 금융 파트너로부터 수백만 유로 지원 확보(7.14)

- 유럽투자은행(EIB)은 국영 우크르가즈은행(Ukrgazbank)에 총 120백만 유로 규모의 대출 및 포트폴리오 보증을 제공,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
- 이 중 50백만 유로는 지역 난방 인프라 현대화 및 재생에너지 통합, 70백만 유로는 중소기업의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
- 국영 오차드은행(Oschadbank)은 EIB로부터 50백만 유로 신용라인과

### 30백만 유로 보조금을 확보
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은 프리바트은행(Privatbank)과 우크르가즈 은행에 대해 총 274백만 유로 규모의 무담보 신용라인 보증을 제공, 이를 통해 약 9억 유로의 신규 대출 실행 가능
-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40.5백만 유로 보조금 배정
- 세계은행 산하 다자간투자보증기구(MIGA)는 BNP Paribas와 ING Bank의 우크라이나 자회사 투자에 대해 각각 1억 유로, 85백만 유로 보증을 제공하며, 현지 은행의 대출 지속 가능성 제고 기대

### ○ 우크라 주요 도시 소매유통 부문 확장 및 신규 입점 현황(7.16)

- 우크라이나 리비우(Lviv)시 시의회는 빈니키 지역 내 복합시설 개발 계획 승인, 시설은 쇼핑몰(3,800㎡), 오피스(383㎡), 아파트형 호텔(116실, 3,900㎡), 일반 호텔(79실, 1,900㎡) 등으로 구성
- BERTA 그룹 계열 식료품 체인 블리젠코(Blyzenko), 볼린州로 매장 확장 예정이며, 현재 리비우, 이바노프란키우스크, 테르노필, 자카르파타, 체르니우치 등 5개 지역에 총 248개 매장 운영 중
- 맥도날드, 체르카시 지역 내 세 번째 매장 개점 검토 중, 루츠크 인근 매장은 현재 공사 진행 중
- 폴란드 의류 브랜드 Sinsay, 자포리자에 신규 매장 2곳 개점 예정
- 나이키(Nike) 플래그십 스토어, 키이우 Ocean Mall 내 신규 개점 예정
- 체르니히우 Hollywood Mall에는 터키 데님 브랜드 Mavi와 Ultra Shop 멀티브랜드가 신규 개점할 예정이며, 입점 브랜드로는 Guess, Levi's, Baldinini, Moschino, Hugo Boss, Liu Jo, Karl Lagerfeld 등

### ○ 우크라이나, 항만 물류 인프라에 3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(7.17)

- 우크라이나 항만청(USPA, Ukrainian Sea Ports Authority)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부두, 철도, 도로, 건물 등 항만 기반시설 복구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

- Pivdenny 항에는 연간 9백만 톤 처리 능력을 갖춘 곡물 터미널 신설 프로젝트 추진, 우크라이나 투자사 UMGI가 약 2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 발표
  - 해당 항구는 대형 선박(Post-Panamax) 접안이 가능해 전략적 농산물 수출 거점으로 주목됨
  - 항만청은 인프라 복구 외에도 디지털화 및 기술 선단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
  - UMGI는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주요 경제 부문에서의 민간 투자 기회가 3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
- 우, 동유럽 최대 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가동 예정(7.14)
-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최대 규모 중 하나인 200MW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곧 가동할 예정임
  - DTEK와 에너지 저장 기업 Fluence\*가 공동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6개 장소에 걸쳐 698개의 Fluence Gridstack 모듈이 설치됐으며, 각각 20MW에서 50MW 용량을 보유
  - \* Fluence :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솔루션 기업, 2018년 독일 지멘스(Siemens)와 미국 AES가 합작하여 설립하였으며, 인도, 대만, 리투아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
  - 총 저장용량은 400MWh, 약 60만 가구에 2시간 동안 전력 공급 가능
  - 상업적 운영은 2025년 10월 예정이며, 우크라이나 전력공사(Ukrenergo)와의 계약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
  - 전쟁 및 접근제한 상황에서 Fluence가 원격으로 시운전을 완료한 최초 사례로 기록
  - 한편, 세계은행은 RePower 프로그램 일환으로, 하르키우시에 33백만 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며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취약지역 8.5MW 규모 지역에 발전설비 설치 추진

### 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EU, 2028~2034년 예산안 발표, 폴에 역대 최대 규모 배정(7.18)

- EU 집행위는 2조 유로 규모의 2028~2034년 예산 초안을 발표, 폴란드는 전체의 약 6%인 1,230억 유로 이상을 배정받을 예정, 회원국 중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
- 배정액 중 1,100억 유로 이상은 결속기금(Cohesion Fund)\* 및 농업 보조금, 약 90억 유로는 사회기후기금을 통한 에너지 전환 지원, 이민·안보 분야에는 약 20억 유로 배정
- \* EU 결속기금(EU Cohesion Fund) : 유럽연합 내 경제적·사회적 격차를 줄이고, 지역 간 통합(cohesion)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회원국을 지원하는 기금, 1인당 GDP가 EU 평균의 90% 미만인 저소득 회원국(폴란드, 루마니아, 불가리아 등)이 지원 대상에 해당함
- 우크라이나·벨라루스·러시아와 접경한 동부 지역은 이주·무역 압력 대응 차원에서 추가 지원 대상
- 예산안은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나, 현재 독일·스웨덴·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지출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 예상

#### ○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, 폴란드 진출 본격화(7.16)

-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(DB, Deutsche Bahn)은 시속 320km 운행이 가능한 ICE3neo 고속열차의 폴란드 내 인증 시험을 마무리, 바르샤바 진출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완료
- 해당 열차는 향후 건설될 폴란드 고속철도망의 바르샤바-포즈난 구간(2035년 이후 예정)에서 운행될 예정으로, 베를린-바르샤바 구간 고속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
- 이번 인증은 CPK 고속철도 프로젝트용 300km/h 이상 열차 40편 도입을 위한 입찰 논의에 불을 붙이며, 독일 지멘스의 선제적 기술 검증이 국내 기업(Pesa·Newag)에 비해 유리하다는 우려 제기
- CPK 측은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것이며, 국내 기업도 해외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경쟁 가능하다고 반박
- ICE3neo는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운행 중이며, 프랑스 TGV 및 일본 신칸센과 동등한 속도를 보유한 유럽 대표 고속열차로 평가됨

####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우크라이나-세계은행, 5년간 2억 달러 규모 재건 프로젝트 준비 프로그램 출범(7.14)
  -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계은행과 ‘PREPARE Ukraine’ 프로그램 협약 체결, 5년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건 사업 준비 지원
  - 경제부 산하 민관협력청(PPP Agency)이 주관하며, 국제 투자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설계 및 실행 기반 마련이 목적
  - URTF(우크라이나 재건 신탁기금)가 지원한 1차 보조금 44.3백만 달러는 공공투자 포트폴리오 개발, 정부기관 대상 기술지원 및 기관 설립 지원 등에 활용되며, 2025년 8월부터 집행 예정
  - PREPARE Ukraine은 교량·병원 재건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 가능한 생산시설 구축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로 구체화될 예정
  - 한편, 우크라이나는 스위스와 2036년까지 장기 재건 협력 협정을 체결, 스위스는 총 50억 스위스프랑(약 87억원) 규모의 재정·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
- 우, 美와 공동투자 펀드 조성 위한 전략광물 탐사권 매각 추진(7.16)
  - 우크라이나 내각은 전략·중요 광물 28종에 대한 목록을 확정하고, 80개 이상 광물 탐사 부지 매각 계획 승인
  - 전략 광물에는 알루미늄, 베릴륨, 구리, 니켈, 탄탈륨, 티타늄, 우라늄, 지르코늄 등이 포함되며, 전자경매(60건) 및 생산물 공유 계약 방식(26건)으로 진행 예정
  - 이번 조치는 미-우 전략광물 협력 합의의 일환으로, 공동 투자펀드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
  - 우크라이나 환경부는 해당 조치가 전략광물 시장 개방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
  -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(U.S.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, DFC)는 미-우 재건 투자펀드 운영사 선정을 위한

정보제공요청서(RFI)를 발행, 공식 입찰 준비절차 돌입

○ **우크라이나 정부 개편, 올리아 스비리덴코 신임 총리 임명(7.18)**

-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인 베르호브나 라다는 전 경제부 장관 올리아 스비리덴코를 새 총리로 선출
- 디지털 전환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제1부총리로 임명, 데니스 슈미할 전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됨
- 국방부가 전략 산업을 관할함에 따라 기존 전략산업부는 해체, 장관이던 허르만 스메타닌은 국영 방위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 (Ukroboronprom)을 지휘
- 경제부, 환경부, 농업부가 통합되어 하나의 부처로 개편되었으며, 경제부 1차 부총리 출신 올렉시 소보프가 장관으로 임명됨
- 타라스 카치카는 유럽 및 유럽-대서양 통합 담당 부총리로 임명 되었으며, 전임 올라 스테파니시나는 미국 협력특별대표로 임명, 주美 대사 후보로 심사 진행중
- 사회정책부는 ‘사회·가족·통합 정책부’로 명칭 변경, 초대 장관은 전 재무부 제1차관 데니스 올류틴이 임명
- 에너지부 장관에는 전 환경부 장관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임명, 전 에너지부 장관 헤르만 갈루셴코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

○ **우크라이나, 대규모 주거정책 개혁 본격 추진(7.17)**

- 우크라이나 의회는 「주거정책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안」을 1차 독회에서 승인하며, 본격적인 주거정책 개혁의 기반 마련
- 해당 법안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계획인 ‘우크라이나 대출금 (Ukraine Facility)’의 일환으로, 2027년까지 총 500억 유로 지원 예정
- 이 중 3억 유로는 올해 4분기 내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, 주거정책 개혁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
- 향후 「사회주택기금법」 및 「사회주택기금 관리법」 등 후속 입법이 계획 중이며, 첫 법안은 2026년 4분기까지 마련될 예정
- 개혁안은 사회임대, 분양 전환형 임대, 공공기관 임대 등 저소득층

대상 임시주거 유형을 도입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

○ **美 트럼프 대통령, 휴전협상 50일 시한 제시 및 고율 관세 경고(7.15)**

- 트럼프 대통령은 NATO 사무총장 마크 뤼터와 회담 중 러시아가 50일 이내 우크라이나와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, 약 100% 수준의 ‘2차 관세(secondary tariffs)’ 를 부과하겠다고 경고
- 뤼터 총장은 미국 및 NATO 차원의 대규모 군사 지원을 공식화, 트럼프 대통령은 고성능 미사일, 방공 무기, 탄약 등 수십억 규모 무기가 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언급
- 무기 공급은 NATO 보유국이 우선 패트리엇(Patriot)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, 미국이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진행
- BBC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무기 지원을 공언한 점과 대러 강경 발언 수위가 높아진 점에 주목
- 같은 날, 美 우크라 특사 켈로그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공중 방어력 강화, 공동 무기 생산, 국제 제재 강화 방안 등 논의

○ **美 의회, ‘50일 평화 협상 시한’ 제시 후 對러 제재안 표결 연기(7.16)**

- 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튄은 러시아 및 러시아산 석유·가스 구매국에 대한 제재 법안 표결을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
-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50일 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, 불응 시 對러 및 거래국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힘
- 튄 원내대표는 “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로 제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” 고 언급
-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칼리스토 “푸틴을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”이라며 제재 입법 필요성 축소 시사
- 이로써 미국 의회 내 러시아 제재법안 추진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입법 가능성도 낮아진 상황

○ **美, NATO에 10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 발표(7.16)**

- 트럼프 대통령은 NATO에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, 이

무기들이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방식의 지원을 공식화

- 공급 무기에는 미사일, 방공 시스템, 포탄 등이 포함되며, 초기 ‘방어용 무기만 공급’ 방침에서 입장이 전환된 것으로 해석됨
-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공습에 사용되었던 장거리 토마호크 정밀 유도 미사일은 향후 대러 협상 수단으로 삼기 위해 공급 보류했다고 보도
- 분석가들은 이번 100억 달러 패키지에 ATACMS 장거리 미사일 (사거리 최대 300km) 사용 승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
- 다만,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공격대상에서 제외되며, 무기 저장소, 군사 기지, 공항 등이 주된 타격 대상

○ EU, 트럼프 무기 판매 발언에 “비용 분담해야” 입장 표명(7.16)

- EU 외교·안보 고위대표 칼라스는 트럼프의 무기 공급 계획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, 유럽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“미국의 지원이라 할 수 없다” 라고 언급
- 트럼프는 NATO 회원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 및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지만, 미국은 자금 지원 없이 “비즈니스” 로 접근하겠다고 언급
- 칼라스는 “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 그것은 유럽의 지원이며, 모든 국가가 같은 수준의 기여를 해야 한다” 고 강조
-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시킬 뿐이며, 협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
-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트럼프의 對러 2차 관세 위협(100%, 50일 유예)이 “평화가 아닌 전쟁 지속 신호” 라고 비판
- 나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EU·NATO가 트럼프에게 강경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

○ EU, 對러 제18차 제재 패키지 발표, 에너지·금융 부문 집중(7.18)

- EU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對러 제18차 제재 패키지를 승인, 에너지·금융 부문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발표
- 이번 제재는 러시아 국부펀드(RDIF,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) 및 주요 22개 은행과 거래를 금지하고, 운영 중단 상태인

##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의 사용을 공식 차단

-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(배럴당 60달러)은 시장 평균가 대비 15% 낮게 유지하는 ‘유동 상한제’로 전환
- 러시아산 원유를 우회 운송하는 ‘그림자 선박’ 105척이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, EU 항만·서비스 접근이 금지된 유조선은 400척 이상으로 증가
- 이번 제재안은 슬로바키아가 가스·석유 공급 보장을 조건으로 반대를 철회하면서 통과
- 러시아는 이번 조치를 “일방적·불법적 제재”로 규정, “제재에 대한 일정 수준의 면역과 경제 적응을 완료했다”고 언급
-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“제재는 러시아뿐 아니라 제재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날의 검”이라고 비판
- EU 내 일부 회원국(헝가리, 슬로바키아 등)은 제재의 역효과와 실효성 부족을 지적

## 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### 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#### 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9(210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  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  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  
'25.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, 사업주간 거래조건 협의 등

#### 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###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#### 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업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 
'20. 10월 금융종결  
'25. 11월 최종 PAC(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) 발급

○ (주요동향)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, Conditional PAC 발급 협의 중

## 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### 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  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  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  
'25. 7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 및 주요 투자조건 협상  
'25. 3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**참고**

**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**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</li> <li>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</li> </ul>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</li> <li>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</li> </ul>
우만 스마트 시 마스터플랜 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</li> </ul>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</li> <li>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</li> </ul>
보리스 공 현대화 재 필 향 등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</li> </ul>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</li> <li>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</li> <li>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</li> </ul>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</li> </ul>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</li> </ul>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</li> <li>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</li> </ul>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·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</li> </ul>
철도 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</li> </ul>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</li> </ul>